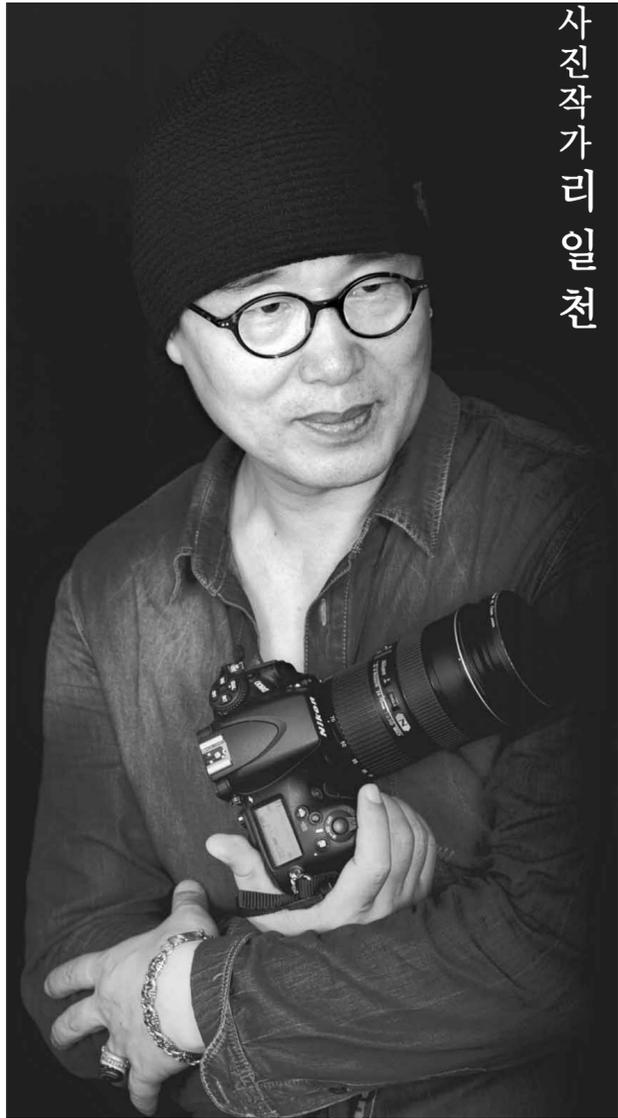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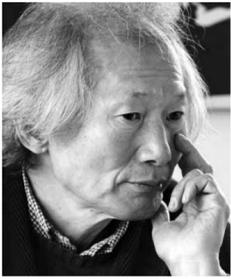


“화가의 삶은 또다른 작품의 세계”



사진작가 리일천



김평준



김영태



송필용



한희원



최재영

지난 2월 한국화가 박태후(60)씨가 펴낸 정원 일기 ‘죽설헌(竹雪軒) 원림(園林)’(열화당 간)을 보면서 저자에게 물었다. “이 많은 사진을 어떻게 촬영하셨느냐”고 그는 “사진작가 리일천(52)씨가 수년간 고생해준 덕분에 무사히 책을 펴낼 수 있었다”고 답했다.

리씨는 2년 동안 시간을 쪼개 나주 금천면 촌곡2구에 있는 화가 박씨의 정원 죽설헌의 사계를 카메라에 담았다. 지난 28일 만난 그는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리씨는 수년 전부터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세계와 삶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벌써 9년째다.

기록 작업은 지난 2006년 한희원, 박태후, 송필용, 최재영, 박문중, 오건규씨 등 지역 미술인 6명의 1년간의 삶과 작품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진작가로서 미술인 개인의 삶이 단순한 개인의 차이를 넘어 지역 미술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최근 아카이브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습니

다. 그래서 그 작업을 계기로 10년 동안 광주 지역 미술인 100명을 기록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지역 미술인들도 반신반의했다. 일부에서는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록 작업을 시작하고 4년이 흐르면서 리씨의 진정성에 미술인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말이 100명이지 그들의 삶을 쫓아다니는 것은 리씨에게 체력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또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술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시작했기에 기록 작업에 드는 비용도 모두 스스로 마련했다. 본인의 전시회를 하다가도 다른 이들의 전시회를 기록하기 위해 갤러리를 비우기도 했다. 리씨는 “1년 동안 이들

을 준 이들은 미술인들이다”고 미소 지었다.

보람 때문에 그만 둘 수 없었고, 처음 ‘10년 동안 100명’이라는 목표도 어느새 ‘평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죽는 날까지 그들의 삶을 따라다니기로 한 것이다. 100명이라는 미술인들의 수도 상징적일 뿐 그가 찾아다니는 작가들의 작업실과 전시회를 따지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지난 9년 동안 기록한 사진은 25만 컷이 넘는다. 그는 단순히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자료화했다. 미술인당 20~25장의 사진을 인쇄해 A3(297 x 420 cm) 크기의 앨범을 만들었다. 그것만도 150여 권에 달한다. 단순한 기록이 아닌 작업환경, 작품이 변해가는 모습, 작가의 삶 등 모든 것이 담겼고, 앞으로도 담을 예정이다.

김평준·한희원·송필용 등 미술인들 150명의 삶 기록 벌써 9년째 25만 컷... 지역 미술역사에 중요한 의미 인도·네팔 풍경 담은 개인전 내달 3~13일 은암미술관서

그는 김평준의 달거리 공연, 대담 아트센터, 광주미협 행사 등 지역의 수많은 문화 행사와 공간도 기록중이다.

“누군가가 묻더군요.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럴 혼자 짊어지고 가느냐고.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도 조금씩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람이 없으면 못하죠. 나중에 광주와 미술인들을 위해 가치있게 쓰였으면 합니다.”

그는 앞으로 고향을 떠나 있는 작가들의 삶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경기에 있는 작가들을 선정해 장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말이다. 결국 그 작가들의 뿌리도 광주라는 생각에서다.

한편 리씨는 6월3~13일 은암미술관에서 ‘공(空)-영혼이 있는 풍경’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그가 지난 1월 다녀온 인도와 네팔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된다. 그의 두 번째 인도 방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그곳에서 경계를 만났다고 한다. 이승과 저승, 빛과 그림자 등을 영혼이 되어 기록한 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문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전남문화예술재단, 내달 3일까지 신청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종사자들의 기획 능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전문기획자 양성에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2기 문화예술 전문기획자 양성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3개월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재단 문화마당에서 진행된다.

문화컨설팅 ‘바라’ 권순석 대표의 ‘지역 문화 트렌드의 변화’ 특강을 시작으로 손재

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예술감독, 박성현 2008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이운선 목포대 국문과 초빙교수, 박시훈 도시축제창의학교장이 멘토로 나서 스토리텔링, 공연예술, 마을축제, 레지던스 4개 분야 모둠별 수업을 진행한다.

참여신청 접수는 6월 3일까지며, 수료자에게는 문화예술 전문 기획자 양성과정 수료증을 발급한다. 수강료는 20만원. 문의 061-280-582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가곡의 밤

내일 광주교류센터 1층

박계·송미나씨 등 출연

올해는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사진·1864~1949) 탄생 150주년을 맞는 해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미의 기사’, ‘살로메’ 등으로 유명한 그는 아름다운 가곡도 많이 남겼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탄생 150주년 기념

가곡의 밤 행사를 갖는다.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교류센터 1층.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독일 가곡을 함께 부르고 공부하는 ‘캄머무지칸트’가 마련했다. 가곡의 밤 행사는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출연자는 조선대 교수로 재직중인 소프라노 박계씨를 비롯해 독일 쾰른 국립음대와 콘체르트 예사멘에서 수학한 소프라노 송미나,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카셀 시립음대 출신인 바리톤 김진모, 이은희(전북대 교수), 서

영선(광주시립합창단 상임 단원)씨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이윤희·이성은씨다.

연주 곡목은 ‘지빠귀새’, ‘나는 떠다니네’, ‘내 사랑을 안고’, ‘아 슬프다 나는 불행한 남자’, ‘내 머리 위에’ 등이다. 문의 062-226-273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중국·티벳·미얀마 선승들 광주에서 수행 법회 연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티벳, 미얀마의 선승들이 광주에서 수행 법회를 연다. 증심사(주지 연광 스님)와 (사)자비심행회(이사장 이화영)는 다음달 13일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들을 초청해 ‘바른 집중을 말하다’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무등산 취백루, 오후 7시 광주시 동구정.

이날 행사에는 경남 진주 도곡선원 선원장 원담 스님, 충국의 명선 스님, 티벳의 간덴사원 교수인 겐뎡사카 스님, 미얀마의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이 참가해 온전한 평화와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062-234-009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매>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매 3억
- 나주시 시청앞 택지지구 4차선 도로변 대지 778㎡ 매9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력우 재 관

급매합니다

인수금액	매물종류	내 용
2,600만원	오피스텔	금남로역세권 7층39㎡ 총가2,600만원(공실)
3,500만원	모텔	계림동 살림(방3)도하고(용2억천원인수)
3,500만원	농가주택	나주 대학앞 근생검 주택 총매가3,500
9,500만원	주택	광주 계림동 대145㎡ 구역1동 60㎡터전
1,000만원	주택	광주 방림동 대지43㎡ 건30㎡ 전2,000㎡
1억	상가빌딩	대인동 4층빌딩 보용2억4,000원208만원월도
1억7,000만원	월세전환용	광주 전대후문앞 보용4억5,000원100㎡월도
2억8,000만원	맹 원룸	광주 롯데앞 풀15 보용9,000원339만원월도
2억7,000만원	원룸빌딩	광주 충장로 풀17 보용1억월510만원월도
1억2,000만원	50%빌딩	광주 롯데부근 보용6억2,000원600만원월도
4억7,000만원	대학가든	영암국도변코너 1,053㎡ 일매100만원이상
6억5,000만원	공용주택	나주 최고요지 신축투룸 보용3억5,000원700㎡월도
4억급매	빌딩	광주 대로변 상업지300㎡3층건물 총가4억 신축및 투자용 최적
2,000만원	임야	광주 남산동 3.3㎡ 땅10만원
3억3,000만원	전원택지	화순운천부근 국도점 3.3㎡ 땅3만원
1,000만원	치킨집포	광주 대인동1층66㎡ 보1,000원월60 권무
8,000만원	플라넵	지하1,322㎡ 종합 유통입소 재팬 대학자리
7,000만원	1층노래방	충장로 최신대형틀8개 (모든룸 화장실 설치)
2,000만원	요지 사무실	대로변 요지 사무실 급매,총수월 다양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다들 즐거운부동산세상

매주 5,000명에서 8,000명이 북적거리는 장터 여러분들 누구내(무로) 참여 가능합니다

[급구]

- 1)현금3억, 현금5억, 현금7억, 현금15억가지고 상가 건물 사려고 해메고있어요 연락주세요 바로 계약합니다
- 2)점포, 주택, 땅살려고 찾아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분들도 많아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수익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